

불법어구 강제철거 강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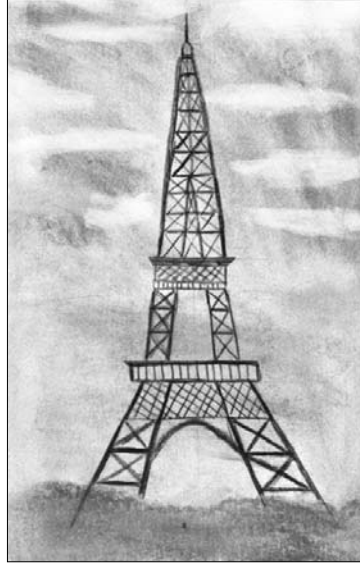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그림

전북 발달장애인사생대회, 군산시 학습관 수상 쾌거

군산시는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사생대회 공모전'에 군산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 수강생 3명이 참가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전북 도내 14개 기관 100여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여 그림 실력을 뽐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에서 참가한 김태영 수강생이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동상 수상의 영광을 얻었고 김은 수강생은 '더 에펠탑'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동상 수상작 '나의 가족'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을 가진 여섯 가족의 모습이 담겨있다. 김태영 수상자의 어머니인 김은아 씨는 "사랑하는 가족을 그린 그림으로 수상을 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군산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재능과 개인역량 개발을 물론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교육에 힘쓰고 있다.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는 전라북도가 주관한 2021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우수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내용진달, 청중대응력, 청중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으며, 시는 '체납자 증감률과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또 2021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을 비롯해 2021년 전라북도 지방세 연차회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한층 더 체납 지방세 징수 역량을 강화했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지속적인 업무연차회 연구를 통하여 직원들의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자주 재원 확보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시·도간 해양질서 확립... 계도·홍보



군산시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어업 시설물에 대해 강제철거를 추진하기로 하고 어업인에게 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어구 및 양식시설물에 대한 각종 민원해소, 선박의 안전운항 보장 및 어족자원 고갈

설치된 어망, 어구 및 양식시설물에 집중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시는 군산의 대표적인 양식품종인 김양식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으로 작황부진과 함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김 양식어가에 시비 1억 1천여만원을 투입해 물길 채취기 등 김 양식어장 장비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래 수산진흥과장은 "군산시 해역의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외지어선의 불법적인 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조업환경과 지속가능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강한 바다, 따뜻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전개

177억원 투입 타 지역 산단과 연계... 기술협력 개발

익산시는 제2일반산업단지(327만 3736㎡부지에 (주)한도, LG화학, 한국세라믹기술원, 두산퓨얼셀 등 19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이 사업은 기존 지원사업의 지역적 한계를 보완하고 타 지역 산단과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산단간 기술협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개된다.

전북에서는 군산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익산 제2일반산단과 원주 과학산단을 연계산단으로 구성해 지난 3월 산단 대개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익산 국가산단에 이어 제2일반산단에 기반시설 정비와 토지 이용계획을 개편해 산업단지 기능을 향상하는 계획을 반영한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도심 속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변모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강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여 발달장애인 각각의 재능을 확인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회였다"며 "발달장애인들의 개성과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가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시, 새만금아카데미 제5강좌 최매근 교수 강연

군산시는 새만금아카데미 제5강좌를 6일 오후 7시에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최매근 교수를 초청해 '국내·외 경제동향과 군산의 경제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로 세계적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현대 중공업, 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 지역이 경제 위기에 처해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경제 정책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함께가는 플랫폼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정책 방안 등이 바뀌어야 함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강연을 맡은 최매근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조지타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2010년 영국 캠브리지 국제 인명센터로부터 '세계 100대 교수'에 선정된바 동시에 '세계 100대 교육자', '21세기 세계의 탁월한 지식인'으로 지정됐다. 또 지난 2017년과 2018년 연속으로 마르퀴즈 후스후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하반기 광경변 예방접종 실시

군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 까지 2주간 주요 인공공동전염병인 광경변 예방을 위해 군산시 지정 동물병원 12곳에서 하반기 백신접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광경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예방접종은 600두 분량의 예방백신을 지정 동물병원에 공급한다.

접종대상은 시에서 동물 등록한 생후 3개월 이상의 건강한 반려견으로 비용은 평소 3만원 내외지만 이 기간에는 5천원의 접종 시술비를 부담하면 된다. 접종주기는 1년에 한 번씩이다.

2개월 이상 기른 반려견은 동물보호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한다. 미등록 반려견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 후, 외지에서 군산시로 이주한 경우는 변경신청 작성 후 접종받을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원광대병원, 기아 오토랜드 광주 의원 개원



원광대학교병원(원)은 최근 기아(주) 오토랜드 광주 의원을 개원했다. 오토랜드 광주 의원은 원광대병원 위탁·운영한다.

이 의료시설에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20명의 전문 능력을 보유한 의료진이 상주한다. 이 시설에서는 진료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등에서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진료 활동을 전개한다. 또 근로자의 건강증진, 산재·질병 예방 주요 근골격계 질환, 건강(특수)검진, 응급진료, 예방 접종 등을 병행한다.

윤경하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산업보건 특수검진 제공, 만성질환 위험군 타겟 관리로 의료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료의료, 산재예방, 질병예방 관리, 건강진단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